

문화와 위험 수용성

김 영 평*

1. 서론: 위험 수용성의 의의와 문화

위험은 사건의 **확률**일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의 개연적 크기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그 결실에 부여된 가치에 의존한다. 가치의 평가는 정치적이고, 미학적이며, 도덕적 문제이다(Douglas, 1992).

Douglas와 Wildavsky가 *Risk and Culture*(1982)라는 책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각종 위험에 대한 인지도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위험 수용성이 문화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현대와 같은 복합적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각양각색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위험의 내용뿐 아니라 위험의 관리가 어떤 제도에 의하여 관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에까지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 수용성의 차이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Rayner, 1992).

위험 수용성이 문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지 않더라도, 문화가 중요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는 세계관의 반영이고 가치와 생활방식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의 표출이다. 현대와 같이 복합적인 사회에서 단일의 문화를 상징하기는 어렵더라도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사회적 조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문화유형에 따른 위협 수용성의 변용과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동성에 따라 제도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장·단점을 검토하려 한다.

여기서는 위협 수용성을 부가적 위협에 대한 지불의사에 국한하지 않고, 관리 기구와 보상방식에 대한 신뢰, 그리고 위협에 대한 공중의 인지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위협을 관리하는 방식의 합리성이 단일최적이 아니라, 다중최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문화도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대상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 위에서 위협 수용성이 각각의 문화에서 어떻게 포착되고, 극복되며, 개선되어 가는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문화분석의 틀로서 Douglas의 격자성-집단성 문화유형

1) 문화유형의 기준으로서 격자성과 집단성

Douglas(1982a)에 의하면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생활의 규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방안으로 문화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다. 외적 유동성에서 신념과 가치들을 포함한 일정한 세계관이 형성된다. 이들 세계관은 특정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조성된다. Douglas는 세계관을 생성하는 사회적 맥락의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격자성(*grid*)과 집단성(*group*)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설파한다.

격자성(*grid*)은 분화의 차원이다.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몇 가지 분명한 분류가 가능하고, 이 분류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구분되어 상호작용하는 범위를 제한받고, 행동선택의 가치가 한정된다. 이러한 제한을 강하게 받는 상황은 격자성이 강한 경우이고, 이와 반대로 격자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전적 분류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시장에서와 같이 동의에 따라 타협과 교환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 격자성은 역할의 분배, 자원의 분배, 전문화, 법적 책임성 등의 국면을 내포하고 있다(Rayner, 1992). 격자성은 한 개인의 생활이 외재적으로 부과된 처방에 의하여 경계가 그어지는 정도를 표시한다. 처방의 범위가 강하고 광범위할 수록 개인적 타협의 여지는 더 작을 것이다. 격자성은 한 사람이 자아중심적 기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규칙을 지칭한다(Thompson et. al., 1990).

격자성은 집단결속이 없이도 개인들이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규칙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 사회환경을 측정하는 비가시적 배경이다. 강한 격자성에서는 분명한 제도적 분류에 따라 사람들을 서로 구분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며 개인적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약한 격자성에서 개인들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구조를 설정하는 데 자유롭다(J. W. Kim, 1993).

집단성(*group*)은 한 집단의 성원과 국외자와의 경계를 그릴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강한 집단성은 배타성이 강하여 집단에의 가입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집단성이 약한 집단은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행동선택에서 집단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집단성은 공동의 활동, 집단의 경계, 상호작용,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차원을 포함한다(Rayner, 1992). 집단성이란 한 개인이 결속된 단위 속으로 편입된 정도로 본다. 편입의 정도가 클수록 개인적 선택은 집단적 결단의 대상이 된다. 집단은 결속된 사회단위의 경험으로 정의된다.

개인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킬 때 집단성은 분명히 사회적 제약의 원천이다. 집단성 차원은 개인들을 단체의 전체체제로 묶어 주는 규칙에 의하여 개인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것은 개인생활이 집단생활에 배속되는 정도이며, 집단이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정도이다(J. W. Kim, 1993).

이 두 차원을 결합시키면 세계관 조성의 사회구조를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즉, 약한 격자성과 약한 집단성(개인주의), 강한 격자성과 약한 집단성(운명주의), 강한 격자성과 강한 집단성(계층주의), 그리고 약한 격자성과 강한 집단성(평등주의) 등이 그들이다(Douglas, 1982b; Douglas & Wildavsky, 1982; Thompson et. al., 1990).

두 차원의 결합에 의해 <그림 1>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문화를 그려낼 수 있다.¹⁾

1) 문화적 다양성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가? 위험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형

〈그림 1〉 격자성과 집단성에 의한 문화유형의 구분

		격자성 (Grid)	
		약 함	강 함
집단성 (Group)	강 함	평등주의 (Egalitarianism)	계층주의 (Hierarchy)
	약 함	개인주의 (Individualism)	운명주의 (Fatalism)

강한 격자성과 약한 격자성의 차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규칙의 존부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간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전반의 규칙, 예컨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규칙은 늘어가고 있다. 경쟁자들간의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와 규칙의 준수, 거래를 원활하게 만드는 규칙의 존재 등을 전제로 할 때 경쟁은 가능하다. 이러한 규칙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격자성에 포함된 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J. W. Kim, 1993).

인 Douglas와 Wildavsky의 *Risk and Culture* 때문에 유명해진 격자성/집단성 분석(*grid/group analysis*)에서는 계층주의와 개인주의에 대응한 평등주의의 전형으로서 종파주의를 내세워 3분류를 하고 있다(Douglas, M. & Wildavsky, A.,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참조). Thompson은 격자성/집단성 분석가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 5의 이념형으로 자율주의를 제시하고 있다(Thompson, M., "The Dynamics of Cultural Theory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Enterprise Culture," in A. Ross, ed., *Understanding the Enterprise Cultur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실제로 분석할 때에는 팀 구성원들을 그물코로 연결하는데 격자성과 집단성의 다중 계층(*multiple-hierarchy*)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Rayner, Steve, "Risk and Relativism in Science for Policy," in Branden B. Johnson & Vincent T. Covello, eds.,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Risk* (Boston: D. Reidel Pub. Co., 1987), pp. 5~23 참조). 그렇다면 문화의 분류는 다양한 문화속성과 차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류는 설명의 이익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Douglas의 문화분류를 따르기로 한다. 이를 위한 분류의 정당성은 일단 문화이론가들의 논의에 맡긴다.

이 네 가지 사회적 맥락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들은 자연을 보는 태도, 시간에 대한 관념, 인간본성에 대한 가정, 위험에 대한 개념까지 서로 다른 문화적 타협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2)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사회규칙으로부터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다만 개인주의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경쟁에서 오는 제약은 예외이다.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으로부터 오는 통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자유방임적 (*Laissez-faire*) 기업가이다. 여기서는 개혁과 모험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진다.

개인주의는 개인들이 서로 경쟁적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한다. 개인의 자유행사는 타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할 수 있다. 거래의 자유는 다른 사회적인 제약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구성하는 개인의 선택지를 늘리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경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고, 승자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게 되므로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반면, 패자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는 각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을 가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지위와 자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가정한다. 그러나 타인과 타협에 의해서 더 많은 자원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맹목적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나타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타협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연합체나 동조자를 규합하게 된다. 따라서 더 강한 세력들과 더 공고한 결속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개인주의에서는 선택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다(J. W. Kim, 1993).

개인적 자율성의 증대는 지적 개방성을 증대시킨다. 모든 발상은 경쟁의 대상이 되며, 회의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인주의에서는 중심(*center*)이 없다. 각 개인이 자기 세계의 중심인 셈이다. 개인주의는 지적으로 왕성하고 탐구적이며 최고의 기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은 경쟁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업적이나 기술에서 우수성을 발휘할 것을 규범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적 개인주의 맥락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남에게 팔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주의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능을 높이 살 사람들에게

과 사회적 연계를 유지한다. 그는 자기가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을 만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안면을 넓혀 둔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있어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체제와 같은 경쟁적 지위에서는 불확실성이 모든 사회적 거래의 속성이다. 신용을 얻고 유지하려면 계속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자기의 전문가적 역량을 확장하고, 지식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Rayner, 1987).

3) 운명주의

이와 대조적으로 운명주의는 기존 사회집단들로부터 배제된 집단에서 볼 수 있다. 불법이민 근로자나 농장노예와 같은 분자화된 굴종자들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타인들이 정해 놓은 허락받은 행동만 선택가능하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사람, 결속되어 있고 총화되어 있는 사회적 집단의 최소한 표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위하여 시간, 에너지 또는 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운명주의자들일는지 모른다.

관료제의 기존 의사결정기구에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보증도 믿지 않는다. 자기가 위험스럽다고 본 것이면 누가 안전하다고 보증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위험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운명주의자들이다(Rayner, 1987).

문화이론에서 개인들의 선택은 사회적 맥락의 지배적 가치와 신념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의지에 반해서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명주의자들은, 다른 범주의 사회맥락에 속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선택을 반영하는 행동이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고, 그 행동은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생각한다(J. W. Kim, 1993). 운명주의 문화는 “자연은 변덕스럽다”는 가정 위에서 있다(Dake, 1992).

운명주의에서는 개인을 묶을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운명주의자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집단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래서 운명주의자는 기술적 의미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원자화된 개인들로 이

투어진다. 이들은 어느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없이 생활의 각 국면이 엄격한 규정에 얽매어 어찌지를 못한다. 따라서 운명주의에 처한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모든 곳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통제의 원천은 자신들이 나오되어 제외된 권위주의에서 오거나 경쟁에서 실패하여 밀려난 개인주의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운명주의자에게 소외를 지속하게 하는 관성은 자신과는 무관한 힘에 의해 먼 곳에서 비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Rayner, 1992).

문화이론은 제약된 선택을 허용하지만 강요된 선택은 허용하지 않는다. 강요된 선택이란 오직 사후적으로 운명주의를 수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운명주의자들은 사회적 계층의 국외자들이고 시장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는 격리(소외)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을 인정하는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운명주의가 가능한가를 토크빌의 설명을 빌린다면, 자유에 대한 욕구와 지도의 필요성 간에 원천적인 긴장이 있고, 양자간의 인지적 이익이 불이익을 능가한다면, 지도의 필요성을 선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때에 자기 의지적으로 자율성을 축소하고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따르는 책임부담에서 도피하려 한다(J. W. Kim, 1993).

4) 평등주의

평등주의에서는 집단의 대외적 경계만 분명하지, 집단 내부에서 구성원간의 지위는 모호하다. 약한 격자성의 조건은 공식적 내부부서 구분이나 차별, 위임 및 특별한 역할 등이 없다는 의미이다. 사회분화의 결핍은 대내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별로 남겨 놓고 있지 못하다. 오직 회원의 특권을 박탈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집단의 분열과 추방이 유일한 갈등해결방안이 될 것이다(J. W. Kim, 1993).

평등주의자들은 성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모든 성원이 가질 것을 고루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권리와 역할이 불분명하고 암묵적으로 부여될 뿐이다. 따라서 의견의 불일치는 대부분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한 봉당을 형성하고, 불일치가 깊어지면 급기야 집단의 분열로 치닫게 되어 종파주의적 양상을 띤다(J. W. Kim, 1993).

집단의 일체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간에 외부 사람과 구분되는 고유성

과 별종근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조직이 약하고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평등주의 집단은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으며 영속하는 조직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대체로 평등주의는 자발적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명제가 어울리는 세계관이다. 여기서는 모든 인간을 참여자와 국외자로 나눈다. 그리고 국외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이 조직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조직에 대한 불충성이다.

평등주의 문화는 개인주의적 맥락과는 달리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한다. 집단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개개인은 집단의 모든 다른 사람의 복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연대성(*solidarity*)이 가장 높은 가치이다. 따라서 소규모 집단은 비가시적이고 음험한 영향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Rayner, 1987).

평등주의 집단은 “자연이 연약하다”는 가정 위에서 있다. 계층주의적 사회관계에서는 위험관리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듯이 평등주의에서는 자연은 덧없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에서 예방적 원칙만이 정당성을 가진다. 평등주의 집단은 계층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절차적 합리성에 대해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평등주의자들은 결실의 평등성을 소중히 여기는 위험정책의 접근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Rayner, 1988b ; Dake, 1992).

5) 계층주의

계층주의는 관료제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집단(또는 관계)에서 볼 수 있다. 계층주의자들에게 성공이란 집단의 지속이다. 필요하다면 집단성원을 희생하고서라도 집단을 존속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계층주의자들은 수많은 내부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주의자들이 집단성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과 대조적이다(J. W. Kim, 1993).

계층주의의 근본적 가치는 부분과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에 기초를 둔 장기적 안정성과 조직에 있다. 계층조직은 부서간 구분성과 조화로운 통일성을 강조하고 초월적 형이상학으로 전체의 부분으로서 관계를 강조한다(J. W. Kim, 1993).

이런 맥락에서 전통과 규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회관계의 조직화와 재조직화의 경험, 그리고 의식이 중시된다.

관료주의에서는 조직의 규칙과 의사결정의 절차가 중시된다. 서로 상충하는 목표나 이해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채 상례적 절차규칙에 따라 봉합된다. 직장의 성공이란 계층제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Rayner, 1987).

3. 문화현상으로서 위험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

1) 문화유형과 위험 수용성

각각의 생활방식은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 문화적 편견에 따라 일정한 위험만을 다루게 된다. 어느 생활방식에서는 간과하는 위험을 다른 문화권에서는 주목하게 될 것이다(Thompson et al., 1990). 개인주의나 계층주의와 같은 기성문화는 항상 위험감수를 좋아하고, 평등주의는 항상 위험회피적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된다. 위험의 인지는 선택적이다. 그것은 주목의 대상에 따라 변한다(Wildavsky & Dake, 1990).

개인주의자들은 다른 문화유형에서 간과하는 것들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데 유능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상이 없는 위험을 백안시한다(Thompson et al., 1990). 계층주의자들은 외부성을 내부화하려고 애쓴다. 즉, 전반적 위험을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이것은 위험의 수용가능 수준을 설정하는 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해 준다). 그러함에도 계층주의자들도 언제나 무엇인가 간과하게 된다(Thompson et al., 1990). 개인주의자나 계층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재해를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재난을 어떻게 서열지어야 하는가에 대해 평등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할 뿐이다. 평등주의자에게는 기술위험이나 환경위험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그러나 계층주의자에게 가장 위험천만한 것은 사회적 일탈이며, 개인주의자는 전쟁의 위험을 가장 두려워한다(Wildavsky & Dake, 1990).

평등주의자들은 종종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는 소년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러나 평등주의자들은 위험을 기회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어떤 위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함으

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를 백안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Thompson et. al., 1990).

개인주의와 제충주의는 안전에 관한 자신들의 판단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신의 이유는 서로 다르다. 개인주의자는 자기가 직접 통제하고 있는 잠재적 재난활동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관료주의에서는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례적 규칙을 과신하기 때문에 재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Rayner, 1987).

이러한 관계 때문에 변상되지 않은 위험이나 편익이 생긴다. 그래서 고려 밖의 위험이 부지불식간에 다른 문화유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Thompson et. al., 1990).

2) 개인주의의 위험 수용성

개인주의자에게 위험은 기회이다. 불확실성이 없고 손실의 위험이 없으면 개인적 보상의 전망도 없고 기업적 전망도 없다고 본다. 개인주의자들은 기술을 좋은 것이라고 가정한다. 시장원리(그리고 개인적으로 타협된 사회관계)를 따르는 것이 기술혁신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창조적 가치를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자원과 접목시키는 방도로 보고 있다. 기술혁신의 막대한 이익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전제와 연결된다(Wildavsky & Dake, 1990). 개인주의자는 새로운 결합과 새로운 기술이 예상 밖의 귀결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믿는다(Thompson et. al., 1990).

개인주의는 '자연은 자애로운 것'이라는 가정을 견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위적인 제약(환경규제나 집행을 위한 제재)에서 풀려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데 한계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풍요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재난들을 보상하고 남을 것이라고 본다(Dake, 1992). 개인주의자들은 재난을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규칙과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Rayner, 1987). 개인주의자들은 규제완화를 합리적인 위험관리전략으로 본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자들은 집합적 통제에서 나온 결정보다는 개개인의 판단에서 나온 결정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Rayner, 1988a).

여기서 '개인주의'라는 용어는 신고전파에서 말하는 어떤 규범적 통제와 행동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선택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개인주의자는 사회관계의 형식을 생성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즉 계약의 자유를 방어하는 사회적 제재방법을 창안하고 소수의 처방들로 자기규제적 네트워크 안에서 흥정을 만드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다(Thompson, 1992).

3) 운명주의의 위험 수용성

운명주의자들은 알려진 바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운명주의자들은 피동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부과시킨다고 본다.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운명주의자들의 위험에 대한 순용이다. 그러므로 다른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대응논리는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이지만, 운명주의자들에게는 당연시된다. 그래서 운명주의자들은 위험에 대해 걱정할 것도 없고, 자신들이 어찌할 도리도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무서울 정도로 금욕주의적 존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Thompson et. al., 1990).

운명주의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제적으로 차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자화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소극성과 세계관의 혼동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통제받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비자발적 위험으로 치부한다.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경제적·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본다(Nelkin, 1982; Wynne, 1980a). 위험과 관련된 신념과 행동은 한편으로 제도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부도덕성의 피해자는 소외 받고 있는 자신들이라고 단정한다(Johnson, 1987).

운명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대해 고립과 은둔을 합리화시키는 문화적 편견을 구조화시킨다. "신경쓸 것 없어" 하는 방식이 운명주의의 합리적 위험관리전략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운명주의자는 개인주의의 자기규제력을 결핍하였고, 계층주의나 평등주의의 집합적 성격의 집단 연대성을 결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명주의자들은 생활에서 어떤 특별한 위험관리 전략도 최선일 수 없는 복권과 같은 우연의 지배를 믿는다. 변덕스럽다고 인정한 세계에 살아야 하는 운명주의자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내버려두어질 권리, 해로운 길

이건 아니건 비켜서 있을 권리를 바란다(Dake, 1992).

4) 평등주의의 위험 수용성

평등주의자들은 기술위험을 감수하기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불평등을 조장하는 시장과 강제력을 가진 계층제를 지원하기 때문이다(Wildavsky & Dake, 1990). 평등주의자들은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의 위험을 강조함으로써 경쟁적 생활방식을 불편하게 여긴다. 사람들에게 숨겨진, 비자발적이고 만회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체제는 어느 것이나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평등주의자들의 재앙이 가까웠다는 예언은 — 예컨대, 지구 온난화, 원자력 발전소의 멜트다운, 산림황폐화 등 — 기존 권위들의 주장을 무시한다. 기존 권위들은 시민의 복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Thompson et. al., 1990).

평등주의자들은 위험관련 문제를 윤리적 언어로 틀을 짠다. 왜냐하면 이런 틀이어야 기술의 사회적·정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위험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제도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형태의 평등주의는 환경의 엄격한 보전을 주장한다(Wildavsky, 1991; Dake, 1992). 계층주의에서처럼 평등주의 문화에서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대상은 집합적 공동체이다. 개인주의에서 지배적인 사회관계와 대칭되는 경우이다.

5) 계층주의의 위험 수용성

계층주의자들은 기술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기술을 자신들이 속한 제도가 약속한 것을 더 좋게 만들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믿기 때문이다. 기술은 더 강력한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준다고 본다(Wildavsky & Dake, 1990).

전문가에 의한 결정이라면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높이 책정하여도 계층주의자들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 계층주의자들은 적합한 사람들이 적합한 경우에 결정을 한다면, 권위에 대한 존경을 당연시한다. 전문가들이 일을 옳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자가 무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 결정뿐만 아니라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는 체제의 정통성마저 허물어뜨리게 된다고

가정한다(Thompson et. al., 1990).

계층주의 문화에 젖은 조직에선 위험관리가 가능한 한 상례화된다. 적절한 부서에서 위험을 규정짓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결정한다. 만일 사고가 일어나면 사실을 발견하는 기구, 희생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기구, 절차를 재검토하는 기구 등이 있어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조직이 잠재적 재난을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다는 과신이 낳는 제 2 차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재난에는 어느 만큼의 시간과 자원을 배정하라는 규정만 따르다 보면 위기감을 훨씬 덜 느끼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계층제적 관료제 조직에서는 재해에 천천히 대응하기 때문에 작은 재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Rayner, 1987).

계층주의적 집단은 “자연은 강인하고 관용적”이라는 가정을 견지한다. 이 가정에 따르면 자연은 어떤 한계점까지는 튼튼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계층주의의 합리적 환경대응전략이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자연의 회복가능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이미 ‘알려진’ (자연의) 한계를 존중한다. 이 세계관에서는 생태계의 한계, 적절한 자원보존 및 발전전략을 적합하게 자격을 부여받은 의사결정자, 즉 계층제 조직의 전문가들이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Dake, 1992).

계층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보다 위험에 대한 인지에 덜 예민하다. 개인주의자는 직업상 위험도 자신의 합리적 계산으로 대처하지만, 계층주의자는 직업상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규정이나 규칙을 과신하여 안전조치에 대하여 허술한 태도를 조장한다. 따라서 조직성원만 아니라 고객까지 위험에 과다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Rayner, 1987).

계층주의는 하나의 전체에 관한 관념이다. 계층제 조직의 한 성원은 전체에 준거해서만 발상하도록 훈련된다. 결속력은 보통 계층적 사고형태, 소우주적 모형의 상징, 명예로운 상의 수여, 처벌을 불명예로 삼으면서 충성심을 유도하기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 사고를 키운다. 따라서 계층주의에서는 주요 위험에 처한 개인의 마음에 공동체적 목표들을 설정하기 때문에 개인적 위험보다 공동체 전체에 대한 비공식적 평가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Douglas, 1992).

4. 문화적 다원성과 위험 수용성의 역동성

현대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이질적인 하위문화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보통 어느 개인이 여러 집단에 소속되는 중복회원인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람이 아침에는 운동모임의 회원이고, 저녁에는 사교모임의 회원이며, 일요일에는 특정 종교집단에 소속되고, 일과시간에는 관료제 조직의 성원인 경우에 이 사람의 문화적 특성을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 격자성-집단성 문화분석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각 개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합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개인은 인지의 부조화 때문에 다양한 생활영역을 가로질러 일정한 세계관을 지속시키려 노력하는지 모른다(Johnson, 1987).

서로 다른 하위문화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의 성원이라면 그 안의 어느 종파의 성원인 사람은 외부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아주 강한 개인주의자로 비칠는지 모른다.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적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반기업적 정서를 표현하고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사람들 눈에는 평등주의에 젖은 종파주의자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모험적이고 이국적 음식을 즐기는 개인주의적 문화에 젖은 인물로 비칠는지 모른다. 미국식 종파주의자는 다른 문화적 속성을 가진 사회의 종파주의자보다 더 개인주의적일는지 모른다(Johnson, 1987).

이렇게 하위문화의 다원적 속성은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한 사람이 세계관의 일관성을 지속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분야의 생활에서 오는 문화구조가 다른 분야의 활동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나타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개인의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ies*), 나아가서 집단의 다중 정체성이 산업사회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합리성의 다원성이 불가피하다면, 한 가지 형태의 합리성에 의존하는 개인이 다른 합리성에서 말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서로 상반하는 생활방식간에 분명한 것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따르는 개인들이 동의에 이르게 되고, 또는 서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까?

개인들은 선택의 근간이 되는 수많은 사회관계, 활동의 영역, 나아가서 조작된 정체성까지 가지고 있다. 상호작용하는 집단이나 개인들은 어떤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옮겨가면서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어떤 때는 사회구조의 극단적 변화를 추구하다가 동시에 다른 국면에서는 변화에 저항하는 식으로 활동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역할의 변화나 관계의 변화를 경험할 때 세계관의 변화를 동반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체로 맥락이나 여건에 따라 전략적 고려가 개인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명제를 검증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Johnson, 1987).

생활방식이 세상을 인지하는 데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반이라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의사소통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회에서 온 인류학자가 원주민을 이해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인류학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다른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무엇이 이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서로 다른 생활방식은 현실세계에서 서로 투과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인지에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는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 개인들은 자신의 생활방식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나은 생활방식의 대안을 찾게 된다(Thompson et. al., 1990).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인식론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기대의 충족에 계속적으로 실패하였을 때, 아직도 진리로 남아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실용적 방법으로 극복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 기이성(*persistent anomalies*)과 촉망받을 만한 대안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재고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게 만든다.

서로 다른 문화유형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각 생활방식은 다른 생활방식의 약점을 착취하고, 그 약점에 비추어 자신들의 결함을 고치고, 자신을 재정립한다. 그러나 다른 생활방식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만일 평등주의가 계층주의와 개인주의를 제거한다면, 그들이 대항해야 할 표적을 상실하게 된다. 자신들의 강한 집단경계를 정당화시켜 줄 이론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자기 생활방식의 준거틀을 약화시키게 된다. 각 생활방식은 다른 생활방식에 생존을 의존하고, 한 생활방식이 존재하기 위해서 최소한 네 가지 생활방식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면 Ross Ashby는 이를 필

수적 다양성 조건 (*requisite variety condition*) 이라고 부르고 있다 (Ashby, 1968).

어느 생활방식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모든 생활방식이 어떤 나라의 어떤 시점에서든 동등하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생활방식들은 대체로 불평형관계에 있어 안정적 역학관계로 안주하지 않고, 그들간의 상대적 힘이 영속적으로 변화한다 (Thompson et. al., 1990).

그러나 각 생활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생활방식을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이 주장들을 엿들을 수 있다. 모든 측면에서 다른 생활방식보다 우월한 초월적 생활방식은 없다. 어느 단일 생활방식도 신성불가침이 아닌 상호비판의 방식이 있을 뿐이다. 편견은 불가피하지만, 편견으로부터 학습 실패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생활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해인지를 공유할 수 있고 (위험) 정책들에 동의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가? 만일 어떤 문화나 하위문화가 독자적으로 세상을 보는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개인들의 유아독존적 세계관 만큼이나 많은 문화적 처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Rayner, 1992)?

얼른 보기에 문화이론은 생활방식의 다원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렴적 귀결보다 분기적 귀결의 설명에 더 잘 어울린다. 그렇다고 경쟁적 생활방식들간에 정책사안에 관한 수렴이 필연적으로 문화이론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특정 사안에 동의하기 위하여 최종목표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정책귀결에 관한 수렴은 중복성, 보완성 및 통합성 등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차원의 공유 또는 차원의 중복은 경쟁적 생활방식을 따르는 사람들간에 비슷한 정책선호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예컨대, 평등주의자와 개인주의자는 격자성 차원에서 마이너스 (*minus*)의 점수를 지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적 도덕성을 규제하는 법률에 반대한다. 계층주의자와 평등주의자는 집단성 차원에서 플러스 (*plus*)의 점수를 지니기 때문에 재분배 조치에 동의할 수 있다. 계층주의자는 하위계층을 위한 높은 사람의 관심을 명백히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고, 평등주의자는 권력과 소득에서 사람들간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선호의 수렴은 상호보완적인 생활방식간에도 가능하다. 계층주의자(강한 집단성과 강한 격자성)와 개인주의자(약한 집단성과 약한 격자성)는 기술혁신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견해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개인주의자는 기술을 기회확장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계층주의자는 기술을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타당하다고 보았으면 더 나은 생활을 약속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서로 다른 생활방식의 추종자들은 같은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로 뜻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창조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문화이론에서는 각 생활방식의 추종자들이 완전히 서로 구분되는 정책선호를 선택한다고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최종목표만이 서로 구분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문화이론의 보편성이 역사적 경험의 부적절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역사만이 이용가능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경험의 바탕에서 알 수 있다. 예컨대, 평등주의자의 목표는 시간을 넘어서서도 불변인 차별의 감소이다.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 채용되는 수단은 역사적 여건변화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문화유형이론은 원칙을 말할 수 있지만, 역사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없이는 정책목표를 성취하는 도구로서 수단을 예측할 수 없다. 문화적 편견은 생활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동노선을 배제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특정 대안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은 평등주의자들이 강력한 외부에 노출된 지도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인격적 특성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5. 문화와 위험 수용성의 제도화

문화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방식이 제도이다. 위험 수용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사회제도는 문화의 차이를 반영한다. 위험의 최종적 수용자는 누구이며, 결국 누가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미국은 쟁송적 방법(*legal adversarial*)에 크게 의존하는 데 비하여, 유럽은 행정부의 관료와 기술전문가들의 협의와 타협을 통한 방법이 우세하다(Jasanoff, 1987).

유럽에서 과학적 판단은 전문가들의 개인적 심의를 통하여 발전된다. 전문가들의 의견불일치가 공중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위험관리정책은 밀실에서 결정되지만 행정활동의 정통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는 주로 제도적 안정성을 통하여 유지된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견해가 극단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합의형성을 조장한다. 대부분 유럽의 공무원들은 정당정치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만 바뀔 뿐이지 규제정책의 근간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쟁송적 법률문화에서는 대립적 논쟁을 조장한다. 조직과 고객 사이에, 의사결정자와 공중 사이에, 기업체들 사이에, 기업체와 정부기관 사이에, 기업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기업체와 자발적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관련 결정에 대립적 논쟁이 나타난다. 위험에 관한 결정은 법률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법률문화는 규제규칙, 입법, 정책, 법집행, 지방정부의 위험관련 업무의 처리방법, 보험요율과 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한 해석 등에 영향을 미친다(Short & Clarke, 1992).

미국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이라는 의미에서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정치에서 법의 도구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제도나 미국의 제도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식 해결법은 논쟁의 여러 가지 형태와 쟁송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식 모형으로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Jasanoff, 1987; Jasanoff, 1992). 유럽모형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반대자들을 대충 무시하고, 때로는 강력한 경제적 세력까지도 무시하면서 정치적 결정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았다. 만일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커지면 유럽모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지 모른다(Barker, 1992).

문화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위험 수용성과 관련된 제도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각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유럽의 제도는 상대적인 계층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결과적인 복지만을 강조하며, 반대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제도는 위의 미국이나 유럽의 제도에 비하여 극단적인 계층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위험분배를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책임자를 검찰에서 범죄적 차원에서 조사한다. 형법적 처벌은 있지만, 당사자 쟁송에 의한 민사적 배상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정부에서 보상을 결정한다. 특별한 거증책임을 묻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잠재우는 것을 더 중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운명주의적으로 위험을 수용하고 있다. 사고나 사건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운수소관이라고 보는 것처럼 행

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제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쟁송에 의한 갈등해결에서 위험문제에 관하여 점점 '엄격한 배상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극단적 개인주의에서 평등주의적 색채를 가미하는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도 지역주민의 위험시설에 대한 반대와 환경운동의 격화로 공개적 청문회를 넓히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대화기회를 늘리고 있다. 이런 경향은 권위주의적 제도에 개인주의적 색채를 가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의 변화는 관찰된다. 최근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각종 기술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집단적 피해사태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제도적 배열이 선을 보이고 있다. 피해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의 확보노력이 확대일로에 있다. 김포 쓰레기 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가 좋은 사례이고,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또 다른 좋은 예시이다. 새로운 형태의 제도는 정부와 국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경향은 극단적인 권위주의의 색채가 옅어지고, 점점 평등주의적 색채가 가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의 제도에서 모방하는 일면도 있고, 국내적 사회역학에 의하여 형성되는 측면도 있다.

제도의 정통성은 대체로 신뢰에 기반을 둔다. 그렇지만 불신이 항상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중은 이제 더 능력이 있고, 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불신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 불신은 참여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책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국 신뢰와 불신의 균형, 또는 다른 사회적 통제기관들간의 균형이 위험과 관련된 결정과 그 집행에 대한 공공적 수용성에 필수적이다(Short, 1992).

네 가지 조직문화의 대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문화의 틀 속에서 정책결정자들은 다른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의 공포와 반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비확률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데 확률이나 손실의 규모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전혀 상대방을 이해할 길이 없어진다(Rayner, 1987).

서로 합의에 도달하는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양립가능하지 못하고, 비용분담의 책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기관으로 서로 다른 사회조직 형

태와 서로 다른 사회경험 및 그에 상응하는 문화를 가진 고객집단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용가능한 정책의 꾸러미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기술의 통제체제를 설계하는 데 혐오시설의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특별배상의 제공이 중요한 성공요건이라고 지적하는 정치학자들이 적지 않다(Starr, 1980 ; Kevin, 1980). 이른바 유인 꾸러미(*incentive package*)를 설계할 때에 화폐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동체들간에 또는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서로 경쟁적이기도 한 관심사항들에 감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유형분류에 의한 문화분석의 필요를 볼 수 있다. 단순히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선호와 세계관에 대한 문화분석에 기초하여 유인 꾸러미를 설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ayner, 1987 ; Rayner, 1984).

6. 문화유형과 위험 수용정책의 문제설정 : 문제 틀짜기의 문화적 해석

위험 수용성에 관한 끊임없는 의견 불일치는 그 기원이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 체계에 있다. 즉,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는 위험과 그에 관련된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위험 수용성 결정에서 고려되는 서로 다른 가치들에 대해 비중을 달리 하며, 위험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틀이나 구조를 서로 다르게 짜고 있다(Vaughan and Marianne, 1992).

어떤 이는 위험수용 가능성의 판단을 무위험에다 두기도 하고, 다른 이는 기존 위험수준에서 상대적인 위험의 증가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틀을 짜기도 한다. 만일 위험에 관한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 문제들의 차이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집단간의 정책정의에 대한 상호이해에 이르지 않고는 아무리 논쟁을 계속해도 의견이나 정책선택의 수렴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위험정책 담당자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기 전에 각각의 타협적 준거들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Beach, 1990).

사람들이 위험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서 어떻게 틀을 잡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책에 관한 의견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다양한 재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및 반응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예컨대 위험평가를

통하여 전체인구가 위험에 노출될 계량적 확률평가는 하나의 틀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노출에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재해에 관한 틀짜기 (*framing*) 이기 때문에 공중을 오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osen, 1990).

위험의 틀잡기, 즉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는 위험관련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정제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Beach, 1990 ; Fischhoff, 1983 ; Tversky & Kahneman, 1981).

문제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위험 수용성이 달라진다.²⁾ 문제의 틀은 기대와 태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기대와 태도는 기술발달이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주는 효과에 관련된 선행 신념체계와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 선행가치와 신념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험문제의 틀을 짜는 성향을 조성한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어느 정도까지 초기 준거점을 정의해 주기 때문이다(Vaughan & Marianne, 1992). 예컨대 기술이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추가적 환경위험의 폭로는 큰 충격파를 던질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태계는 회복가능하고 자기수정능력을 가졌다는 신념은 다른 정책선호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윈주의 사회나 다중문화 사회에서 여러 위험문제의 틀짜기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정보가 제공되는 형식에 따라서 위험문제의 개념화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Vlek & Keren, 1991). 정보의 틀도 역시 의사

2) 틀짜기에 의한 문제설정의 차이가 문제해결방법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Tversky와 Kahneman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주로 위험문제의 틀을 달리 짜면 정책선호나 갈등증가에 어떤 체계적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손실이 이득보다 더 심리적 충격이 크며, 사람들은 손실을 최소화시킬 때에는 위험추구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득을 최대화시킬 때에는 위험회피의 경향을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정의 결실에 대한 손익을 따질 때에는 어떤 준거점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비추어 일차적으로 평가한다. 이 준거점은 대체로 현상태이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자의 규범, 최근 경험, 특정 목표에 대한 열망 등이 반영된 기대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Tversky, A. & Kahneman, D.,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1981), pp. 453~458 참조).

결정자의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선행신념과 가치, 과거경험, 위협에 대한 대응이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포함하고 있다(Brunner, 1991 ; Nelkin, 1989).

대부분 위험정책의 결정상황은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선택이 아니라 약간의 위협을 수용하는 대신 경제적 또는 기타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안적 개념화의 빌미를 용이하게 제공한다. 즉, 어떤 행동노선이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게 되는가를 부각시킴에 따라 다른 틀을 만들 수 있다 (Vaughan & Marianne, 1992). 예컨대 농업의 병충해를 막기 위해 공중농약살포를 해야 하는가 여부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과밀지역에 살포되느냐 여부를 중심으로 틀을 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농업 생산성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또 제 3자는 공중살포가 지상살포에 비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추가적 위협을 받아들일 만한가에 틀을 맞추기도 한다. 한마디로 추가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최대 인명손실에 비추어 주어진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에 맞추어 틀을 짤 수 있으며, 아니면 추가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실할 인명수에 비추어 한정된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에 비추어 틀을 짤 수도 있다(Hilgartner, 1985).

Rayner는 위협과 관련하여 각 문화유형은 다음과 같은 문제설정에 관심을 둔다고 설파하고 있다(Rayner, 1987 ; 1992).

개인만이 세계관적 정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도 일정한 문화적 정향을 보여준다.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문화적 세계관을 가진 것은 아니나, 사회조직의 지배연합이 특정 세계관을 우세하게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문제의 서로 다른 국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결정전략을 선호하도록 이끈다.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합의의 얻는 방법이나 편익과 보상책임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조직의 문화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경쟁적 개인주의 조직에서 정책결정자들은 표출적 선호(*revealed preference*) 접근법을 좋아한다(Rayner, 1987). 여기서는 시장의 힘이 기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위협의 손실을 누가 지는가가 시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순수한 시장적 해결이 불가능하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범위 안에서 시장과 유사한 제도를 형성하여 이용한다.

대체로 경쟁적 개인주의자들은 단기적 보상을 강조한다. 어떤 공동체가 더 큰

사회를 대신해서 비용을 짊어지기 때문에 부가적 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보상에는 현금지급, 세금감면, 사회복지시설 유치 등이 선호된다(Rayner, 1987).

계층적 관료제 조직의 구성원은 가설적 동조를 좋아한다. 시민은 의사결정 제도와 사회적 계약을 맺었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개인이 제도가 만든 결정의 특정 결과를 싫어할지라도 그 제도의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결정에 동참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위험과 관련된 결정의 수용성은 제도적 결정구조의 합현성에 대한 청원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Rayner, 1987).

계층주의자들은 체제유지를 강조하고, 미래의 통제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와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다수에 대한 이익을 강조한다. 이들을 위한 유인 꾸러미는 공공투자 형태의 공동체 하부구조에 대한 지원, 토지가의 보상, 예외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실질적 피해주민에 대한 보험과 보증기금 등의 설립을 선호한다(Rayner, 1987).

평등주의 집단은 집단의 공유 가치 서열에 분명한 판단을 제공하는 표현적 선호(*expressed preferences*)를 좋아한다. 평등주의 집단의 구성원은 재해손실에 대한 시장적 접근이나 분배적 접근보다 서열화된 가치에 따라 예견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의 도덕적 결정을 추구한다. 혐오시설의 수용성은 기업가나 관료와는 아주 다른 기준에 따라 문제를 보려 한다(Rayner, 1987).

평등주의자 집단들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결정도 자진해서 수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은 대부분 합의의 측면이나 배상책임의 분배측면에서 그들이 중시 여기는 윤리적 원칙들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염시설의 역효과를 미리 방어하거나 감소시키고, 또는 제거하는 조치를 충분히 보장한다면 평등주의자의 일부는 오염시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유인체제는 완충지를 충분히 설정하거나, 공동체가 통제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동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폐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한다(Rayner, 1987).

소외적 운명주의 집단의 선호에서는 특별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들의 선택을 독특한 동의이론이나 분배이론으로 수렴시키기 어렵다. 그들은 대체로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있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이고, 대부분 전사회적 선택은 다른 문화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있다. 운명주의자들은 남들의 실책으로 야기된

비용을 짊어질 뿐 자신들의 동조가 수용되는 경우는 회소하다는 불평을 말할 만하다. 다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위협받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정의 강요에 반항하는 NIMBY 집단을 형성할는지 모른다.

운명주의자들은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고 견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면에 대한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평등주의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정책결정자의 문제들은 더 복잡하게 된다.

7. 위험 수용성의 문화결정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위험 수용성의 문화결정론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하고, 그에 대하여 약간의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론에 대한 비판도 문화유형의 세계관이나 생활방식을 달리하는 사람들간의 비판과 비슷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즉,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수정되거나 포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이론이 제시되는 경향을 가진다.

1) 개인의 자유선택 부정에 대한 비판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조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건, 아니면 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된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되건 문화이론은 개인의 자유선택의 여지를 부정한다는 비판이다. 문화유형의 생활방식은 마치 프로그램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을 좋아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등을 말해 주기 때문에 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이나 인형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Thompson et al., 1990). 선호의 문제에서도 개인의 선택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문화이론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다양한 생활방식은 개인들에게 무한하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이론은 여러 가지 문화유형의 생활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가

르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른 가능성의 지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관찰할 기회도 제공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기존 사회구성과 대안적 사회구성을 비교하는 이성의 힘을 증진할 수 있다.

생활범주의 문화분석은 기존의 이론들이 제시하는 계층과 시장의 틀 이외에 평등주의와 운명주의의 조직양상을 사회적 차원에서 도출해 냈다는 점을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문화분석의 장점은 생활범주가 관찰에서 나온 특수성(*ad hoc*)의 반영이 아니라 차원들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이념형이라는 점이다. 생활방식의 범주들은 집단 관여의 정도와 사회적 처방의 정도에 비추어 범주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영역에 대한 범주들은 상호배타적이고 영역포괄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분류의 논리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Thompson et al., 1990).

그러나 문화이론은 자칫 잘못하면 '문화제국주의' 또는 '문화결정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현상은 문화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버렸고, 다른 설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문화이론에서는 문화유형이 개인이나 사회조직으로 하여금 어떤 가치는 수용하고 다른 가치는 거절하도록 마음상태를 구조화시킨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선택한 가치 때문에 위협과 편익에 대한 지각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특성이 아닌 사회집합체의 특성에서 문화적 원형을 찾고 있으면서, 증거로서 일화적인 것만 제시하고 있다. 역할분화나 역할차별은 집합체의 기능분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 집단이 원형들의 혼합물에 불과하다면, 문화이론은 설명력을 상당히 상실할 것이다. 문화적 설명은 그것을 타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실증적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집단 속에 여러 문화의 원형이 혼합되어 있다면, 문화적 설명이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제를 기각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관찰된 행동도 원형의 어떠한 혼합과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설명이 스스로 자명한 설명이 되어버리기 쉽다. 이런 명제는 과학적 설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사회적 책임회피의 빌미에 대한 비판

현실주의자들은 위험의 문화적 구성이론이 기술과 환경의 현실적 위험으로서 생명과 육체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사회적 무책임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문화이론에서 위험의 사회적·문화적 구성을 인정한다면, 위험의 객관성을 도외시하여 실제로 위험 때문에 죽어가거나 병신이 되는 위험에 직면해서도 기술과 환경 위험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위험도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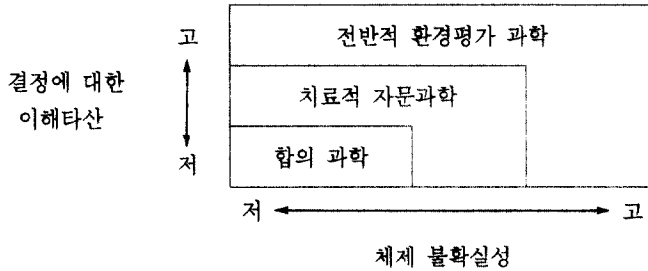
문화이론에 따르면, 위험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객관적 존재도 아니고, 값비싼 보상적·수정적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가들에게 배상책임을 거절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산업가들 쪽에서 보면, 문화이론을 받아들이면 현재의 엄격한 과학적·법적 기준에 따라 거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진보에 따라 산업가의 무과실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을 걱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문화이론은 복잡한 사회에서 다원적 합리성들의 공존을 인정하고, 기술적 위험의 객관적 측정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합리적 위험인지라는 발상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비판은 방향을 잘못 잡은 비판이다. 과학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모든 과학적 명제에서 전원이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Funtowicz and Ravetz(1985; 1992)에 의하면, 과학은 세 가지 수준의 지식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과학적 설명에서 핵심적일 수도 있고, 지배적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참조). 즉, 합의적 과학에서는 문화적 변용이 거의 사소한 영향을 주지만, 상담적 자문과학에서는 핵심적 영향을 주고, 전반적 환경평가과학에서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핵심적·합의적 과학에서 치료적 자문을 거쳐 환경평가로 옮겨가면서 지식에서 문화적 변용의 역할은 합의적 과학에서는 지엽적이다가, 치료적·자문적 과학에서는 핵심적이고, 환경평가적 과학에서는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자연적 되먹임(feedback)의 역할은 과학의 성격에 따라 문화적 제약의 역할과는 반대로 변화할 것이다(Rayner, 1992).

과학활동 자체가 동료들의 비판적 판단에 의하여 유지되는 하나의 사회적 활동임에 분명하다. 과학적 적합성 판단여부를 과학적 방법으로 답해 줄 수 없다. 과

〈그림 2〉 세 가지 종류의 과학



학도 비판을 통하여 얻어진 합의에 의존하는 지식이다. 전반적 환경평가는 합의에 도달하기 이전의 비판에 의존하는 과학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어서 약간의 미래시점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은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가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적 과학에서는 지식에 관한 통문화적(cross-cultural) 합의가 성취된 과학이므로 객관적 위험에 대한 피해의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까지 위험의 책임을 회피할 길은 넓지 않다.

현대 산업사회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가치의 틀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적 원형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들은 서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포착하고 극복하려 한다. 문화이론도 일반인들의 다양한 위험인지를 이해하는 데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가장 광범위한 목표에 대한 체계적 견해를 제시한다. 위험을 기술적인 문제로 고립시키는 대신, 영성하지만 그것에 도덕적·정치적 함축의미가 포함되도록 형성하기 때문에 문화이론은 위험문제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Douglas, 1992).

3) 문화집합주의와 문화개인주의

문화이론에서는 각각의 문화집단은 서로 위험문제에 대하여 독특한 입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태도와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이론 옹호자들은 이 설명이 개인의 태도나 신념에 적용되지 않고, 집단이나 제도와 같은 사회적으로 대규모 집합체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³⁾ 문화이론에서는 위험

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고 있다(Rayner, 1984 ; Douglas, 1985 ; Renn, 1992).

문화적 원형으로 조직적 또는 집단적 속성을 설명한다면, 문화적 원형과 집단적 이해관계와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문화적 귀속이 조직적 이익에 앞선다면, 집단이나 조직이 어떤 문화적 원형에 속하는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운명주의자나 평등주의자들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원형들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들로 형성되었는가? 환경을 보전하려는 이해관계가 평등주의적 시각을 채용하도록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평등주의적 세계관이 환경론자를 키운 것인가?

문화적 원형의 선택은 종족적 구분에 대한 증거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다. 위험현상을 세 가지나 네 가지 문화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한 가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지 배타적 설명구도는 될 수 없다. 예컨대 평등주의적 집단이 자유주의적 집단과 다른 세계관을 갖는 것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할 유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 문화이론은 가치나 세계관에 대한 강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나 효용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득실관계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 것인가? 문화이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문화적 수용가능성을 측정할 공통의 분모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문화적 정향과 전략적 태도의 관계는 환경과 기술위험에 관한 논쟁에서 시장은 위험 추구적이고, 시민단체는 위험 혐오적이며, 계층제적 관료조직은 위험 관리적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다. 오히려 여러 제도들 안에서 제기되는 주장의 신뢰성이나 담론에 부과되는 제약은 자기이익 추구에 기초하는 기능적 선호와 상호작용하며, 광범위한 논쟁에서 전략내용과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문화이론은 사회조직을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기회와 제약의 유형을 제

-
- 3) 모든 문화이론가들이 분석단위를 집단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수준의 조사에서 단체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Wildavsky를 들 수 있다(Wildavsky, A. & Dake, K., "Theories of Risk Perception : Who Fears What and Why?," *Daedalus* 119(4) (1990), pp. 41~60 참조). 이들은 문화적 원형으로 개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특정 기관이나 산업 대표의 사회적 역할 담당자로서 환경과 위험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이론이다. 문화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받아들인다. ① 문화적 편견은 불가피하다. ② 사람들이 어떤 사회조직에 안주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꾸러미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Renn, 1992). 문화이론은 정태적이기보다 동태적이고, 문화유형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자기강화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추론의 형태(*reasoning style*)에 관한 예측은 문화와 일관되게 변용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계층주의에서는 환원주의적 추론의 경향이 강하고, 기관의 행동이나 말에서 모순을 공개하려는 경향이 약하다. 그러나 평등주의적 집합주의에서는 기술과 윤리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총체주의적 편향의 주장이 우세하다. 시장적 개인주의에서는 득실계산을 중시하는 실용적 평가가 중요한 추론방법이기 때문에 개체주의적 방법론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Renn, 1992). 이러한 범위에서 문화이론은 다른 이론에서 논증하기 어려운 위험과 관련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넓혀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8. 결 론

격자성과 집단성에 의존한 문화분석이 다른 문화이론과 구분되는 특징은 그것이 다중균형이론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단일의 최적균형에 반대한다. 개인선택의 기준으로서 효용 최대화와 같은 최적이론 대신에 문화이론은 각각의 문제에 대해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문화원형에 따라 합리적이거나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여러 개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개인의 자기이해와 갈등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이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인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원자력 시설이 어느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가는 그에 대한 위험 수용성에 의존하고, 그 위험인지는 다시 그의 문화적 편견의 함수이다. 문화이론이 동기로서 이해관계의 작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화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이익이 있는지 알게 되었나를 묻고 있다(Thompson et. al., 1990).

문화적 분류에 의한 위험 수용성의 설명은 사색 촉발적(*thought provoking*) 이론이다. 아직 이 이론에 대한 어느 비판도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서로 다른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의 문화적 차이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내용을 반증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문화이론가들은 아직도 일화적이거나 아주 협소한 실증적 자료에 의존하여 결만 훑어보는 방법으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Douglas 와 Wildavsky가 *Risk and Culture*(1982)에서 미국의 환경주의를 종파주의로 설명하고 있지만, 부분적 설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분설명이라는 이유로 종파주의를 거절해야 할 지식도 충분치 않다. 최소한 이 이론은 사고체계와 사회조직체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Johnson, 1987).

문화이론은 투박하면서도 이미 만들어진 측정의 틀을 가진 유형분류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세련되고 구체적이며 자세하고 개별적인 사회환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설명하려는 이론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세한 특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서로 다른 역사적 설정에서 다른 여건과 비교될 수 있는 안목이 넓은 그림을 스케치하는 것을 지향한다(Thompson et al., 1990).

위험 수용성의 설명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환경주의자들이 성스럽게 주장하는 가치인 환경권(또는 자연권)은 인간지식의 한계에 대한 감식이고, 그 많은 기술적 인공물들의 취약한 기반에 대한 감식이기도 하다. 기술에 대한 완전한 통제란 언제나 허구이다.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의사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사실상 과학적 정당성이나 실증적 증거에 불충분성을 상징화하고 있다(Wynne, 1980b).

불확실성을 가정하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완전하게 설명할 도구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이론에 의한 위험 수용성의 설명은 우리에게 이해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기에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존한 위험 수용성에서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문화이론을 통하여 제기되었고 해설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위험 수용성의 설명에서 문화이론의 가치는 이러한 기반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Ashby, W. Ross. 1968. "Variety, Constraint, and the Law of Requisite Variety," in Walter Buckley, eds., *Modern Systems Research for the Behavioral Scientist*. pp.129~136. Chicago : Aldine.
- Barker, A. 1992. "Expert Advice and Formal Public Involvement on Public Policies Involving Risk," in James F. Short, Jr. & Lee Clarke, eds., *Organizations, Uncertainties, and Risk*. pp.207~222. Boulder : Westview Press.
- Beach, L. R. 1990. *Image Theory : Decision Making i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ontext*. New York : Wiley.
- Brunner, R. D. 1991. "Global Climate Change : Defining the Policy Problem," *Policy Sciences* 24 : pp.291~311.
- Dake, K. 1992. "Myths of Nature : Cul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 pp.21~37.
- Douglas, M. 1992. *Risk and Blame*. London : Routledge.
- Douglas, M. & A.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ouglas, Mary. 1982a. "Cultural Bias," in Mary Douglas, ed., *In the Active Voice*. pp.183~254.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Douglas, Mary, ed., 1982b. *Essays in the Sociology of Perception*.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Fischhoff, B. 1983. "Predicting Fram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Learning, Memory, & Cognition* 9 : pp.103~116.
- Funtowicz, S. O. & J. R. Ravetz. 1985. "Three Types of Risk Assessment," in C. Whipple & V. T. Covello, eds., *Risk Analysis in the Private Sector*. New York : Plenum Press.
- Funtowicz, S. O. & J. R. Ravetz. 1992. "Three Types of Risk Assessment and the Emergence of Post-Normal Science," in S. Krimsky & D. Golding,

- eds., *Social Theories of Risk*, pp. 251~272. Westport, CT : Praeger.
- Hilgartner, S. 1985. "The Political Language of Risk : Defining Occupational Health," in D. Nelkin, ed. *The Language of Risk*, pp. 25~66. Beverly Hills, CA : Sage.
- Jasanoff, S. 1987. "Cultural Aspects of Risk Assessment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Branden B. Johnson & Vincent T. Covello, eds.,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Risk* : 359~397. Boston : D. Reidel Pub. Co.
- Johnson, B. B. 1987. "The Environmentalist Movement and Grid/Group Analysis : A Modest Critique," in Branden B. Johnson & Vincent T. Covello, eds.,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Risk*, pp. 147~175. Boston : D. Reidel Pub. Co.
- Kevin, D. 1980. *Federal/State Relations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ceans Program*. Washington, D. C. : U. 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Kim, Jong Wan. 1993. *Cultural Analysis of Concept of Democracy in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Nelkin, D. 1982. "Blunders in the Business of Risk (review of Risk and Culture)," *Nature* August : pp. 775~776.
- Nelkin, D. 1989. "Communicating Technological Risk :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0 : pp. 95~113.
- Rayner, S. 1992. "Cultural Theory and Risk Analysis," in S. Krimsky &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pp. 83~115. Westport, CT : Praeger.
- Rayner, Steve. 1984. "Disagreeing about Risk : The Institutional Cultures of Risk Management and Planning for Future Generations," in S. Hadden, ed., *Risk Analysis, Institutions, and Public Policy*. Port Washington, N. Y. : Associated Faculty Press.
- Rayner, Steve. 1987. "Risk and Relativism in Science for Policy," in Branden B. Johnson & Vincent T. Covello, eds.,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Risk*, pp. 5~23. Boston : D. Reidel Pub. Co.
- Renn, Ortwin. 1992. "Concepts of Risk : A Classification," in S. Krimsky &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pp. 53~79. Westport, CT : Praeger.

- Rosen, J. D. 1990. "Much Ado about Alar,"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7 : pp. 85~90.
- Short, J. F. Jr. 1992. "Defining, Explaining, and Managing Risks," in James F. Short, Jr. & Lee Clarke, eds. *Organizations, Uncertainties, and Risk*. pp. 3~23. Boulder : Westview Press.
- Short, J. F. Jr. & L. Clarke. 1992. "Social Organization and Risk," in James F. Short, Jr. & Lee Clarke, eds., *Organizations, Uncertainties, and Risk*. pp. 309~321. Boulder : Westview Press.
- Starr, Chauncey. 1980. "Risk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Paper presented to the ANS/ENS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 C.
- Thompson, L. 1990. "Negotiation Behavior and Outcomes :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Issues," *Psychological Bulletin* 108 : pp. 515~532.
- Thompson, M. 1992. "The Dynamics of Cultural Theory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Enterprise Culture," in A. Ross, ed., *Understanding the Enterprise Culture*.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 Thompson, M., R. Ellis, & A. Wildavsky. 1990. *Cultural Theory*. Boulder : Westview Press.
- Tversky, A. & D. Kahneman.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 pp. 453~458.
- Vaughan, E. & S. Marianne. 1992. "Variability in the Framing of Risk Issue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 pp. 119~135.
- Vlek, C. & G. Keren. 1991. "Behavioral Decision Theory and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 What have We Learned and What has Been Neglected?,"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Probability, Utility, and Decision Making. Fribourg, Sweden.
- Wildavsky, A. & K. Dake. 1990. "Theories of Risk Perception : Who Fears What and Why?," *Daedalus* 119(4) : pp. 41~60.
- Wildavsky, A. 1991. *The Rise of Radical Egalitarianism*. Washington, D. C. : American University Press.
- Wynne, B. 1980a. "Discussion Paper on J. Conrad : Society and Risk Assessment : An Attempt at Interpretation," in Jobst Conrad, ed., *Society, Technology and Risk Assessment*. pp. 291~286. London : Academic Press.

Wynne, B. 1980b. "Technology, Risk and Participation : On the Social Treatment of Uncertainty," in Jobst Conrad, ed. , *Society, Technology and Risk Assessment*. pp.173~208. London : Academic Press.